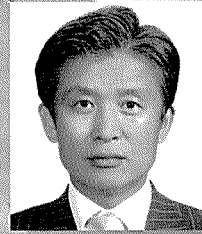


유비쿼터스 시대, IT의 역할



국립충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지문위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과학기술분과 위원장
충북 중평군 지역혁신센터장

글 김용승 국립충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yskim@gnc.ac.kr

Infomation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지만 '빨리병' 때문에 진정 우리네들에 필요한 기반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기피하고, 당장 효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에만 의욕을 갖고 있다. IT란 Infomation Technology이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상기될 수 있지만, 우리 산업구조에서 하드웨어쪽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큰 관심을 갖는 민족성을 새로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Technology

2005년 국내 정보통신(IT) 산업 전체 생산액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233.2조원으로 마감되었으며, 이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년 대비 1.5%, 정보통신기기는 0.6%, 소프트웨어는 10.2%의 각 부문별 성장을 가져왔다. 전년 대비 2005년 IT 산업생산은 1.6% 증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IT관련 산학 동반자들의 어깨는 밑으로 처진지 상당히 오래인 것으로 생각된다. IMF 체제 이후에 대기업 몇 군데를 제외하고 IT 산업 전반(특히, 중소기업)에 걸쳐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이 가면 분명 봄은 온다'는 어느 시인의 글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참아내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지만 '빨리병'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반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기피하고, 당장 효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부분에만 의욕을 갖고 있다. IT란 Infomation Technology이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상기될 수 있지만, 우리 산업구조에서 하드웨어쪽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큰 관심을 갖는 민족성을 새로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배치에서 대부분의 지역전략 산업은 IT 산업 중에서 정보통신관련기기 산업부문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중흥 기조가 백색가전에서 정보통신가전으로 바뀌어 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가가치 면에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 중흥만이 최고의 산

업구조인데, 왜 우리 민족이 머리좋다고 하면서 인도만 못하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

MS의 차세대 윈도우 비스타의 내년 출시 예정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IT,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이 따라야 할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행동 기반으로 봐야만 한다고 본다.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포함시킨 일, 구글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MS 직원들에게 전의를 다지는 빌 게이츠의 모습에서 새로운 각오를 찾아야 한다. 이제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새로운 시대사조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에서는 기기 생산업체 및 서비스 제공 산업의 유비쿼터스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능화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이 수익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 연계산업이 훌륭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계의 보다 큰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대학의 IT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맞춤형된 주문식 교육의 체제 도입과 정착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정부지원 관점에서는 계획과 성과에 대한 세밀화된 평가가 따라 주어야 되며, 대학 관점에서는 긴밀한 산학연구가 꼭 따라야 된다고 본다.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IT가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에, 기반 교육이 아닌 차별화·특성화를 추구하는 교육이야말로 대학 IT 교육이 가야할 지표인 것 같다. Users